

치 사

제10회 불교출판문화상 수상자와 출판사 그리고 ‘올해의 불서10’에 선정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판은 정보와 지식을 담는 가장 오래된 그릇으로써 선대가 이룩한 뛰어난 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는데 중심의 몫을 담당해 왔습니다. 불교출판 역시 1700년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유형의 사찰문화와 무형의 불교교리, 수행법 등을 문서로써 작성하고 다듬어 왔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사부대중에게 올바르게 알리고 전승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불교출판문화상 공모에는 예년보다 많은 48개 출판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불교출판문화상이 불교출판계를 대표하고 양질의 불서를 발굴하고 보급하는 권위있는 시상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기술이 진보하고 출판플랫폼이 다양화 되면서, 인쇄 출판시장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지식 전달의 수단 중 아직까지 책을 뛰어 넘는 수단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성을 담아가며 읽을 수 있으며 잠시 멈추어가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인성중심의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불교출판문화상이 발굴한 양서를 사부대중들이 외면하지 않고, 수시로 찾아 읽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으로 새긴다면, 불교출판계의 활성화는 물론 불교출판인들의 문서포교라는 대원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질의 독서는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이러한 개인의 삶에 질을 높여주고 나아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원력으로 각자의 역할에 임한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불교 문화 발전을 진일보 시키는 선봉장이 될 것입니다.

불교출판문화상이 성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불교출판 문화협회 지홍스님과 불교출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 모두 자비광명으로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7(2013)년 12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